



청소년도 '웰빙'

중·고교생 10년새 패스트푸드 섭취율 절반 '뚝'
탄산음료도 20% 줄어...아침 결식은 개선 안돼

최근 10년 사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피자, 햄버거, 치킨 등 패스트푸드 섭취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침식사 결식률은 다소 높아져 10명 중 3명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질병관리본부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식습관 현황' 보고서(윤성하 김현자 오경원)에 따르면 2005~2014년 1~10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0년 사이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남학생은 2005년 31.2%에서 2014년 16.5%로, 같은 기간 여학생은 29.8%에서 14.5%로 감소했다.

패스트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이 청소년들의 식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근 7일간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은 비율'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3회 이상 섭취' 여부로 본 탄산음료 섭취율도 크게 줄었다. 남학생은 2005년 59.7%에서 2014년 32.3%로, 여학생은 같은 기간 45.3%에서 19.1%로 각각 줄었다.

정도는 다르지만 과일이나 채소 섭취

빈도 역시 최근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최근 7일간 하루 1번 과일을 먹었다고 답한 남학생은 작년 조사에서 20.8%로 나타나 2005년의 32.0%보다 11.2%포인트나 감소했다. 여학생 역시 33.4%에서 23.4%로 10%포인트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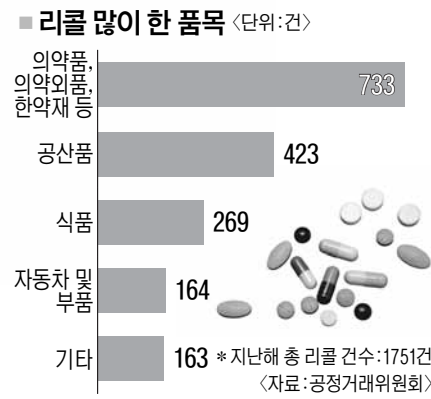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최근 7일간 1일 3회 이상 채소 반찬을 섭취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6.6%와 14.5%로, 2005년의 18.4%와 15.4%보다 소폭 줄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은 지난 10년 사이 10명 중 3명꼴을 유지해 이들의 아침 결식 습관은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7일간 아침식사를 5일 이상 먹지 않은 남학생과 여학생은 작년 각각 28.2%와 28.9%로 조사돼 2005년의 26.4%, 28.0%보다 소폭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남학생 31.2%, 여학생 42.3%), '식욕이 없어서'(남학생 22.9%, 여학생 16.9%), '늦잠을 자서'(남학생 20.3%, 여학생 17.5%)를 꼽았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영양교육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제습기·에어컨 서비스 상담 두배 늘어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제습기, 에어컨, 자동차대어 등 여름철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상담이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전국 단일 상담량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달 소비자상담은 7만 149건으로 6월의 7만 6812건보다 6.9%(5263건)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제습기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 들어와 전월보다 142.9% 늘었다. 주로 성능 불량·악취·발열·소음, 수리용 부품 미보유 관련 상담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에어컨 관련 상담접수는 총 1044건이 접수돼 전월보다 112.6% 늘었다. 상담 문의 대부분은 냉방불량·가스누출·소음, 설치비 과다청구·설치

미흡, 수리용 부품 미보유 관련 내용이었다.

자동차대어(렌트) 관련 상담은 7월 한 달간 총 562건이 접수됐으며 상담건수는 전월보다 62.4% 늘었다. 대여차량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금, 휴차비,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다는 내용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위약금 관련 상담도 많았다.

차량 대어 관련 상담 매년 휴가철인 7~8월에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7월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건 늘었다. 냉장고는 총 746건의 상담 문의가 들어와 전달 대비 40.8% 증가했는데, 성에·소음·전면 강화 유리 파손, 수리용 부품 미보유 및 수리불가 관련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선풍기는 109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달보다 4.8% 증가했다.

연합뉴스

리콜 건수 '경충'...1752건 1년새 80% 폭증

의약·제품안전·식품위생·자동차관리 91% 차지

지난해 리콜 실적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내놓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비자원의 리콜 실적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리콜건수는 17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973건) 대비 779건(80%)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리콜 유형별로는 정부의 리콜명령이 1136건(64.8%)으로 가장 많았다. 자진리콜(339건, 19.4%), 리콜권고(277건, 15.8%)가 뒤를 이었다. 모든 유형에서 전년 대비 증가 추세가 나타났다.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733건, 41.8%), 제품안전기본법(423건, 24.1%), 식품위생법(269건, 15.4%), 자동차관리법(164건, 9.4%) 등 4개 법률에 근

거한 리콜이 약 9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업자 스스로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하는 '자진 리콜'의 경우 공산품(52건), 자동차(164건) 등에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콜관리기준 강화와 지난해 GM이 전 세계적으로 대량 리콜한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률별 리콜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관련 법률 중 약사법(41.8%), 제품안전기본법(24.1%), 식품위생법(15.4%), 자동차관리법(9.4%) 등 4개 법률이 약 90.7%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차원에서도 위해물품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캠핑용 매트, 무해 하지만 화재엔 취약

캠핑용 매트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가을 캠핑시즌을 맞아 캠핑용품 품질시험 및 해외시장 가격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슈머 리포트' 제8호를 지난 27일 발간한다.

이번 스포슈머 리포트에서는 판매되는 캠핑용 발포 매트 7개 제품과 타프(가림막) 8개 제품을 선정해 휘탄 가능·내구성, 자외선 차단 등 8개 분야의 품질 실험을 한 결과 캠핑용 매트는 유해물질에 안전하나 방염성은 거의 없어 화재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캠핑용 매트 경우 지난 3월 발생한 강화도 클럽 핑 화재 사고로 방염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실험결과 매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전소할

때까지 불이 번져 화재 발생 시 오히려 촉매제 역할을 했다.

야외활동 시 강한 햇빛과 비를 막아주는 캠핑용 타프 8개 제품의 품질 실험에서는 방수 기능에서 제품 간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일부 제품은 야외에서 장시간 사용 시 자외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됐다. 인터넷 캠핑 카페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제작·판매되는 캠핑타운의 '위오 블랙코팅 프리미엄 핵스타프'는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스포슈머 리포트'는 전용 웹진(http://spouser.spois.or.kr)과 블로그(http://blog.naver.com/spouser2015)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 목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몰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